鄕歌를 통해 본 月明師의 位置

金　鍾　雨

序　論
1. 月明師兜率歌條의 分段
2. 노래의 意味
① 祭亡妹歌 ② 兜率歌
3. 月明師의 位置
結　語

序　論

月明師가 신라에 出生하여 活動한 時代는 景德王때이다. 이 때는 신라의 文化가 最高로 난숙했던 그 絶頂期에 해당한다. 新羅史家인 末松保和는 신라의 歷史를 4期로 구분하고[1] 武烈王에서 惠恭王까지를 제3의 난숙期라고 하였는데 이 景德王代는 제36代 惠恭王朝의 直前인 것이니, 신라의 文化가 가장 난숙했던 때로서, 장차 신라가 그 解體期에 들어서려고 하는 문턱이기도 한 때이다.

그런데 現存하는 향가들中에서 보면, 이 때에 나타난 향가의 作者로는 이 月明師外에 忠談師가 있어 安民歌와 讚耆婆郎歌라는 2수의 노래를 남겼고, 이 月明師가 또한 2수의 향가를 지어 이 때의 作者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時代에 活動한 月明師는 그 어떠한 人物的 位置에 있는가? 이것을 나는 그의 상세한 一代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중심하여 이모저모로 살펴볼까한다. 그의 작품을 통하여 그 人物됨을 推定코자 하는것이니, 前者를 月明師의 作品論이라 하면, 後者는 그이에 대한 作家論이라고도 하겠다.

1) 末松保和, 新羅史研究の近況, 朝鮮文化の研究, 京城帝大文學會編, pp.59~62, 昭和十二年.

먼저, 論述의 便宜上 三國遺事의 月明師兜率歌條를 2개項으로 分段하여 一括提示하고, 다음, 그의 노래의 意味를 모색해본 후, 끝으로 그의 人物됨을 살피어 보다 可能한 그의 位置를 推定해 보려한다.

1. 月明師兜率歌條의 分段

이 月明師兜率歌條는 時期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2개項으로 區分한다.

①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挾旬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德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靑陽樓 望緣僧 時有月明師 行于阡陌時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 屬於國仙之徒 只解鄕歌 不閑聲梵 王曰旣卜緣僧 雖用鄕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其詞曰 今日此矣散花唱良 巴寶白乎隱花良 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解曰 龍樓此日散花歌 挑送靑雲 一片花 殷重直心之所使 遠邀兜率大僊家. 今俗謂此爲散花歌 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 旣而日怪即滅 王嘉之 賜品茶一襲 水晶念珠百八箇 忽有 一童子 儀形鮮潔 跪奉茶珠 從殿西小門而出 明是內宮之使 王謂師之從者 及玄徵 而俱非 王甚異之 使人追之 童入內院塔中而隱 茶珠在南壁畵慈氏像前 知明之至 德興至誠 能招假于至聖也如此 朝野莫不聞知 王益敬之 更賜綵一百疋 以表鴻誠.

②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鄕歌祭之 忽有驚颸吹紙錢 飛擧向西而沒 歌曰 生死路隱 此矣有阻米次肹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 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 彌陀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明常居四天王寺 善吹笛 嘗月夜吹過門前大路 月馭爲之停輪 因 名其路曰月明里 師亦以是著名 師卽能俊大師之門人也 羅人尙鄕歌者尙矣 盖詩頌 之類歟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 讚曰 風送飛錢資逝妹 笛搖明月住廻娥 莫 言兜率連天遠 萬德花迎一曲歌.

위와 같이 이 說文을 2개項으로 分段한 것은 제2項에서 보다싶이 「明又嘗爲亡妹營齋作鄕歌祭之」하여 일찌기라는 嘗字가 있는 것으로 볼 때, 兜率歌보다 祭亡妹歌가 먼저 되어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들 두 노래의 뜻은 어떤것인가? 먼저 祭亡妹歌에서부터 알아본다.

2. 노래의 意味

① 祭亡妹歌

生死路는 이이샤매 저히고 나는 가누다 말도 몯다닏고 가누닛고 어느 ᄀᆞ술

이른보로미 이에더에 떠딜닢다이 ᄒᆞᆫ듯갖애나고 가논곧모다온뎌.아으 彌陀刹애 맛보올내 道닷가 기드리고다.[2]

이 노래는 그 初句에서 人間의 一大事인 生과 死를 들어서 이승과 저승과의 交通을 假說로 내세우고, 결국 끝句에 가서 彌陀刹에서의 相逢을 期하는 것으로써 이 生死의 對立矛盾을 宗教的으로 昇化시키고 있다. 그 中間句에서는 秋風에 落葉과도 같이 元來는 한 나무의 所生인데도 이곳 저곳으로 말도없이 떨어져가는 것이 곧 人生이라고 生兄과 死妹와의 눈물어린 離別의 情感을 呼訴하고 있다. 이런점에다 이 노래의 중점을 돌려보면, 한낱 순수한 抒情詩로서의 可能性도 充分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의 作者는 이렇게 자기의 主觀的 체험에서 온 情感을 표현하면서도, 크게는 人間對人間의 連結을 彌陀刹이라는 世界에서 서로 交通함으로써, 이 세상의 怨과 恨, 喜와 悲를 超克하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 詩를 구태여 말한다면 宗教的 抒情詩라 할까한다. 여기 彌陀刹이란 곧 阿彌陀佛이 居하는 極樂世界를 말하는 것이니, 이 極樂이란 性格과 그곳에 있는 彌陀란 어떠한 思想性을 가진이인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詩를 지은 月明은 젊은 시절! 彌陀信仰에 매혹된 情感에 넘친 佛僧이 아니었나, 이렇게 想定해 본다.

먼저 彌陀刹의 性格인데 이것은 곧 西方의 極樂世界를 指稱한다.

佛告長老舍利弗從是西方過十萬億佛土 有世界名日極樂 其土有佛號阿彌陀現在說法. 舍利弗彼土何故名爲極樂 其國衆生無有衆苦. 但受諸樂故名極樂.[3]

이에 의하면, 極樂은 여기로부터 西方十萬億佛土를 지나서 存在하는 世界이다. 특히 西方이라고 그 方位를 指定한것은 무슨 理由인가? 그곳은 이세상 모든 萬物이 다 歸趣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서 온 것이다.

閻浮提는 日出處인바 生을 의미하는 곳이요, 西方은 日沒處로서 死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死地에서야 神明에 趣入함에 그 相이 便利하고 保助

2) 梁柱東, 古歌硏究, p.540, 博文出版社, 서울.
3) 阿彌陀經

的이다.[4]

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세상의 日月星辰을 비롯하여 天地萬物은 모두가 西方으로 向하기 때문에 密教에서는 이곳을 成菩提門이라 하고 阿彌陀佛을 여기에 配置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西方은 모든 萬物이 다 돌아가는 것이어서 사람도 그곳에 가서야 깨다음의 境界도 成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래서 특히 西方이라는 方位를 指定케 된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極樂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그곳에 常住說法한다는 阿彌陀는 어떠한 思想을 가진이인가? 이佛은 그의 因行時인 法藏보살때부터 48개의 큰 願을 發하고 成佛후에도 西方에 있으며 중생을 悲接하겠다고 맹서한이이다.

자기는 설사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를지라도 이 세상에 아직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아귀, 축생과 같은 三途에서 허덕이는 자가 있다면, 자기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願인 것이다. 이러한 48의 큰 願이 모두 성취되는 날에야 無量한 수명과 無量한 光明으로 장식된 佛身과 佛國土가 일우어 진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기 一身만의 해탈이나 獨樂이 아니고 온 세계의 중생과 더불어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세계에서 살자는 것이다. 이것이 阿彌陀의 근본되는 思想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생각이 실천되는 極樂에는 많은 莊嚴現象이 펼쳐지는데 그 中에서 다음의 十種莊嚴[5]이 특별한 것이다.

法藏誓願修因莊嚴　四十八願願力莊嚴
彌陀名號壽光莊嚴　三大上觀寶像莊嚴
彌陀國土安樂莊嚴　寶河清淨德水莊嚴
寶殿如意樓閣莊嚴　晝夜長遠時分莊嚴
二十四樂淨土莊嚴　三十種益功德莊嚴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아름다운 蓮花로 장식한 九品의 蓮臺가 있는데, 사람이 命終時를 당하여 단 十念의 아미타佛을 念하는 念名功德만으로도 下品에

4) 安樂集
5) 安震湖 편, 釋門儀範, p.85, 法輪社, 서울, 1970.

는 下生할 수 있다한다. 이것은 곧 순간적으로 지옥과 극낙을 가름하는 指標인 동시에 누구라도 쉽게 行하고 가벼히 닦을 수 있음을 가르친 것으로 퍽 庶民的인 신앙이다. 이外에 平凡한 사람으로서 日常生活에서 다음과 같은 3개의 일만 하여도 아미타불을 가까이 볼 수 있다하여 우리에게 善事를 가르치고 있다.

> 爾時世尊告韋提希 汝今知不 阿彌陀佛 去此不遠 汝當繫念 諦觀彼國淨業成者 我今爲汝廣說衆譬 亦令未來世一切凡夫 欲修三淨業者 得生西方極樂國土 欲生彼國者當修三福 一者孝養父母奉事師長 慈心不殺修十善業 二者受持三歸具足衆戒 不犯威儀 三者發菩提心深信因果 讀誦大乘勸進行者 如此三事各爲淨業.[6]

이에 따르면, 극낙으로 往生키 위하는 3개의 淨業中에서 第一이 父母를 孝養하고 師長을 奉事하는 일이다. 이것을 확대하면 兄弟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는 일도 이에 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月明이 죽어간 누이를 위하여 祭文을 부르는 일도 단순한 情의 발로만이 아닌 淨業을 닦는 한 行의 過程을 노래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직 또 三歸를 受持하여야 하고 菩提心을 發하여야 하는 등의 淨業을 行하여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그는 「彌陀刹애맛보올내 道닷가기드리고다」라고 呼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詩는 하나의 抒情的인 宗教詩요 作者는 젊은 佛僧이며, 亡妹의 靈을 제사함에 당하여 미타신앙에 執念코 있는 行者의 외침이었다고 생각한다.

② 兜率歌

> 오늘이에 散花불어 ᄇᆞ술본 곶아너는 고ᄃᆞᆫᄆᆞᄉᆞ미命브리옵디 彌勒座主뫼서롸[7]

이 노래는 月明一代에서 좀 後代에 되었으리라고 짐작되는데, 아마도 月明이 佛僧이면서 또한 花郞으로서도 活動을 展開하여 당시 신라의 現實에도 널리 參與하면서 지은것인듯 하다. 노래에서 뿌려지는 꽃은 頓呼法으로 表現되고, 뫼시려하는 미륵은 끝句에서 「彌勒座主를 뫼시어라」하여 命令形으

6) 觀無量壽經
7) 梁柱東, 古歌研究, p.523, 博文出版社, 서울.

로 마금한다. 여기 뿌리는 꽃은 一次的으로 미륵님께 드리는 花供을 暗示하고, 다시 그것을 擬人化하여 미륵님을 뫼시는 것이 퍽 印象的이다. 이것은 아마도 作者가 事物을 發見하고 認識하는 힘이 强하였던데서 연유한 것으로 그의 才能中의 한 秘法이기도 한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륵과 花郎 꽃이 三者가 복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의 思想的 中心은 彌勒信仰인가 한다.

먼저 이 미륵신앙인데, 여기에는 上生과 下生이라는 두개의 신앙이 있다.

若有人受持讀誦解其意趣 是人命終爲千佛授手 令不恐怖不墮惡趣 即往兜率天上彌勒菩薩所[8]

兜率은 번역하여 知足이라 하는바, 이 하늘은 欲界 六欲天中의 하나이며, 미륵보살이 이곳에 常住하여 說法中이며, 이 法華經을 受持讀誦하면 其人이 命終後에는 千佛의 인가를 받고 도솔天上의 彌勒所로 往生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신앙을 말하여 上生信仰이라 하고.

當來彌勒於此樹下說法度人而有三會 初會先度釋迦所未度者 次度其餘凡六十八億人 第二會六十六億人 第三會六十三億故曰龍第三會[9]

釋迦가 간후 季法萬年이 지나면, 兜率天에 있던 彌勒菩薩이 이 세상의 龍華樹下에 나려와서 三會에 걸쳐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 같이 나기를 밀고 원하는 것이 下生信仰의 근거이다. 즉 이때에 彌勒은 釋迦의 繼承佛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위치에 있을 부처를 當來龍華教主彌勒尊佛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그는 現在는 보살이고 未來에는 佛인 것이다. 이 보살所에 나는 것을 上生이라하고 佛處에 나는 것을 下生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人들은 성급하게도 이러한 보살이 신라에 出現하여 살기좋은 樂土를 이룩하기를 원했었다. 특히 신라에서는 보살로서 보다도 신라의 現實에 참여할 수 있는 花郎으로서의 出現을 바랐다. 여기에서 彌勒은 新羅의

8) 法華經
9) 彌勒下生經

花郎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의 한 例로

有興輪寺僧眞慈每就堂前彌勒像前 發願誓言 願我大聖化作花郎出現於世[10]

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外에도 末尸郎說話 竹旨郎說話등에서도 彌勒과 花郎과의 관계는 퍽 신라에서 밀착된 相關關係 이었음을 알게 하거니와, 여기 月明師도 佛僧이면서 또한 國仙이기도 한 點에서 볼 때, 그는 불교의 彌勒信仰을 바탕으로 하고 社會活動上에서는 花郎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한 人物이었음이 推察된다.

그리고 佛前에 받치는 供物로는 香과 茶가 一般的으로 사용되지만, 여기 등장한 꽃도 퍽 중요한 供物이며 때에 行하는 儀式이 또 散花功德의 자리이기에 그 중요性이 있는데 더구나 그 꽃을 擬人化한 것은 아주 印象을 깊게 하고 있다. 이런點 月明은 花郎作家로서의 活動면목을 大端히 매력있게 하여 준다. 이 노래는 散花功德이란 불교의식을 行하는 자리에서 月明이 緣僧인 花郎的 位置에서 意志의 힘을 絶叫한 一種의 公的禱歌이었다고 생각한다.

以上에서 月明의 두 노래를 통하여 그의 人物됨을 말하여왔거니와, 다시 말하여 그가 初期에 지은 祭亡妹歌에서는 미타신앙을 근간으로하고 亡妹의 靈앞에 자기의 私的 情感을 호소하면서 人間對 人間의 連結을 宗教的으로 昇化코저 한 純粹性을 表出하였고, 좀 後에 되었으리라고 보는 兜率歌에서는 불교의 彌勒信仰을 저변에 깔고 散花功德을 行하는 儀式의 자리에서 公的인 絶叫로써 숭고한 意志를 表現한 參與의 現實性이 강한것을 表出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 두 노래를 통하여 月明의 人物됨을 생각하니, 그는 불교의 미타신앙과 미륵신앙과를 共有한 圓融한 佛教思想家이며, 한편 文學的 側面으로는 純粹와 參與를 共行한 신라의 行動的 예술人이었다고 할만하다.

10) 三國遺事, 塔像第四 彌勒仙花, 末尸郎, 眞慈師.

3. 月明師의 位置

이 月明師에 대한 傳記는 위에서 擧示한 兜率歌條가 있을뿐, 다른데서는 볼 수 없음으로 다분히 推定에 치우치게 됨이 유감이나, 다음은 그의 身上에 대하여 좀 擧論키로 한다. 위의 說文에서 보면 첫째로 그는 「能俊大師之門人也」라 하였으니 그의 法統은 佛僧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가 또 緣僧으로 뽑히었다 하니, 이 緣僧이란 무엇인가? 생각컨대 여기 緣僧이란 곧 어떤 神異的인 새로운 認識으로써 크나큰 災殃도 멀리 물리치는 能力者를 말한것 같다. 狹旬不滅하는 二日까지도 능히 釀除할 수 있는 힘의 所有者인 것이다. 月明은 능히 이러한 災殃도 그의 歌力을 통하여 물리쳤으니, 景德王이 기다리던 좋은 緣僧이었다 하겠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말하되, 「臣僧但屬於國仙之徒」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자칫하면 佛僧이 아니고 國仙인가? 하는 의혹이 생김즉도 하지만, 분명히 그는 臣僧이라 하였으니, 그 근본身分은 僧이고 다만, 社會上 活動面에서는 國仙의 徒로도 行한다는 말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이이를 신라의 代表的인 僧郞이라고 命名하고 싶은것이다. 僧郞과 花郞과는 어떠한 區別이 있으며, 또 僧郞이란 어떤 特殊한 系譜라도 가진것인가? 하는것은 別로 硏究된 문제이지만, 여기 月明師는 四天王寺에 居하면서 달밤에 그가 피리를 불면 「月馭爲之停輪」하는 일도 있었고, 亡妹를 위하여 祭를 올릴때 그가 노래를 불렀더니, 「忽有驚颸 吹紙錢 飛擧向西而沒」하는 奇異한 일도 일어났다. 이런일은 다 그의 예술的 天分이 뛰어나서 自然神明까지에도 감동을 주었다는 表現이거니와, 여기 景德王의 緣僧으로서 또는 國仙으로서 活動하여 兜率歌를 唱하니 「日怪即滅」의 效를 내게 했다는 것은 그의 社會的 活動面에서의 크나큰 힘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僧郞인 月明은 당시의 뭇花郞들을 敎導하는 位置에 있은 人物이었으리라고 推察한다.

그리고 위에서 月明은 彌陀와 彌勒의 두 신앙을 共有한이었다 하였거니와 同一한 僧의 身分이면서도 그 初期에는 누구라도 易行易修할 미타신앙에 感했었음은 그의 庶民的 性格이 짙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요 後期에 오면서

社會生活에 參與하여 難行難得하는 미륵신앙에로 기울었음은 그가 王家를 비롯하여 花郞들과 접촉함에서 생겨진 高踏的 性格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여기 月明의 二重的 性格의 形成을 立證하기 위하여 미타와 도솔과의 그 往生難易論을 元曉를 통해 알아본다.

> 或說西方易生兜率難生 且有七種差別 一極樂是人易生兜率是天難生 二極樂但持五戒得生兜率具修十善方往 三極樂乃至十念往兜率具施戒修往 四西方終憑彌陀佛四十八大願往兜率可憑唯自力往 五西方有觀音菩薩等當來此土勸進往兜率無此事 六西方經論具讚勸兜率但一經讚說 七古來大德向西方多向兜率者少 由此義故西方易往生 兜率難上生也[11]

이렇게 西方의 極樂과 兜率天과의 사이에는 七種의 差別이 있어서, 極樂의 往生은 易行易修的이어서 그 信仰이 一般人에게 普及되기가 쉬웠고, 이에 反하여 兜率天의 往生은 難行難得이어서 一部人에 치우치는 傾向이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미륵신앙은 신라에서 主로 王家佛教 貴族佛教로 밀착하였었음을 보게된다. 아마 이러한 風潮로 因하여 신라 민중에서도 그 精神的 階層에 分化도 있었겠지만, 月明師 個人에 있어서도 그 初期는 쉬운것에서 出發하였지만, 後期로 오면서 漸次 어려운것에로 沈潛되어 간 것 같다. 따라서 그의 性格面에서도 庶民性과 貴族性의 兩面이 혼합한 것으로 形成되어 간듯하다. 그러나 그는 僧郞이란 位置에서 이 庶民性과 貴族性의 兩계층을 퍽 自由로히 往來하며 그의 役割을 充分히 發揮한 人物이 아니었나, 이렇게 推定해 본다.

結 語

以上에서 나는 月明師가 남긴 2수의 향가를 中心하여 그의 人物됨을 살피어 보았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좀더 자세한 그의 傳記는 없기때문에 이 三國遺事의 兜率歌條만을 唯一한 자료로 하고, 그의 노래를 中心으로 하다보

11) 游心安樂道.

니, 자연 지나친 推定에 흐르게 되기 마련이어서, 果然 그의 올바른 位置를 찾을 수 있었는가가 자못 의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서너점을 알게 된 것은 퍽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1) 月明의 一代를 初期와 後期로 나누워보면 그 初期에는 미타신앙에 혹하였고 후기에는 미륵신앙에로 沒入했다는 점.

2) 그리하여 月明의 初期에 되어진 노래가 私的 情感을 노래하면서 宗教的으로 보다 높은 次元으로 超越해 보려는 祭亡妹歌를 낳게 되었고, 후기에 되어진 노래로는 兜率歌로서 그의 公的 意志를 絶叫하면서 자기의 힘을 보이려했다는 점.

3) 月明은 宗教的으로는 미타와 미륵의 두 신앙을 共有하고 文學上으로는 純情와 參與를 共行하여 신라의 才分있는 예술人인 동시에 圓融한 佛教思想家이기도 했다는 점.

4) 月明은 身分上에서는 佛僧이었지만 社會活動面에서는 때로는 緣僧으로 또는 國仙으로 活躍하여서 신라의 代表的인 僧侶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의 二重的 性格에 대한 所論도 그의 位置를 말함에 있어서는 꼭 擧論되어야 할 점이었다고 생각한다.